

첨단기술 입은 전남 미술·박물관



전남도와 (재)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개발해 강진 고려청자디지털박물관에 구축한 실감형 전시콘텐츠 '강진청자, 천년의 숨결을 흔든다'. 고려청자 디지털 박물관을 찾는 관람객을 대상으로 한 '스토리 기반' 융복합 몰입형 콘텐츠다.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제공)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22개 문화공간에 융합콘텐츠 등 제공 청자·고분 등 지역 자원에 디지털 기술 결합...문화·관광산업 육성

전남도내 곳곳에 자리한 미술관, 박물관이 실감 콘텐츠 체험공간으로 바뀌고 있다. 과거 작품이나 유물을 보여주는 평면적 형태만이 아니라 증강현실(AR), 가상현실(VR)에 프로젝션 매핑(대상물 표면에 영상을 투사해 변화를 주는 행위), 미디어파사드 등 미디어아트까지 다양한 첨단기술과 융복합 콘텐츠가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

전남도가 지난 2018년부터 올해까지 (재)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에 위탁, 22개 시·군 공공 문화공간에 '체험형 관광 융복합 콘텐츠', '융합 콘텐츠', '전시관·박물관 체험콘텐츠' 등을 개발해 공급하면서 생김 변화다.

27일 진흥원에 따르면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간 도내 17개 시·군에 33개의 실감형 전시콘텐츠를 보급했으며, 올해도 순천, 목포, 보성, 진도, 고흥, 곡성을 대상으로 7개 콘텐츠를 개발 중이다. 이들 콘텐츠들은 강진 고려청자디지털박물관, 해남 공룡박물관, 나주 북암리고분전시관 등에 구축돼 관람객들의 체험과 학습, 오감 만족에 기여하

고 있다. 이들 실감형 전시콘텐츠는 지역 특화자원과 연계돼 있어 특히 주목을 받고 있다. 전남도와 진흥원이 해마다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수요 조사를 실시한 뒤 평가를 통해 사업 대상지를 선정하면서 지역의 전통·예술·철화·인물·사건·축제 등 지역의 독특한 색깔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향후 관광산업 육성과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나형진 진흥원 팀장은 "전남의 콘텐츠산업 발전을 위해서 어떤 콘텐츠를 개발해야 하는지 치열하게 고민해왔고 지금도 계속 검토 중이다"며 "전남 콘텐츠산업 발전을 위해 게임, 웹툰 등에도 적극적으로 지원해 궁극적으로는 문화관광과 연계한 콘텐츠 산업을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진흥원의 실감형 전시콘텐츠 개발 지원은 지역 콘텐츠 기업의 성장과도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진흥원은 참여기업을 전남 소재 기업으로 제한하고, 최대 규모 사업인 경우 주관할 기업은 지

역 제한을 해제한 대신 지역기업이 컨소시엄으로 반드시 참여하도록 했다. 실감형 전시콘텐츠 개발 사업의 예산은 1억5000만 원에서 9억 원으로 다양하다.

순천의 콘텐츠기업 서재원(주)트래블패키지 공동대표는 "지역에 1억 원이 넘어가는 콘텐츠 사업은 소수에 불과하다"며 "그나마 지역기업에게는 기회가 거의 없었는데, 이번 진흥원의 조치로 큰 도움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진흥원은 올해 개발·구축이 완료되는 전시콘텐츠부터 관람객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후 조사 결과를 반영, 양질의 실감형 전시콘텐츠를 개발에 참조할 방침이다. 또 지역 콘텐츠 기업의 역량 강화와 성장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장기적인 지원 계획도 수립하기로 했다.

노시훈 전남대 문화전문대학원 교수는 "지역 내 실감형 전시콘텐츠 개발 기업들의 역량이 상당 수준으로 올라와 있다"며 "지자체와 수행기업이 상호 소통을 통해 협력하는 방안을 노력하고, 이 사업의 장점인 지역의 고유한 문화가치를 통한 지역 문화 발전, 지역민·관광객 만족도 향상에 더 기여하도록 했으면 한다"고 평가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삼국유사·내방가사·태안유류피해극복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아태 지역 목록 등재

'삼국유사' 등 기록물 3건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아시아태평양(아태) 지역 목록에 등재됐다. 26일 문화재청에 따르면 '삼국유사' <사진>, '내방가사', '태안 유류피해 극복 기록물' 등 3건이 경북 안동에서 열린 '제9차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아태 지역위원회총회'에서 아태 지역목록으로 최종 등재됐다.

우리나라는 '한국의 편액' (2016년), '만인의 정원, 만인소' (2018년), '조선왕조 궁중현판' (2018년) 등 3건을 보유하고 있다.

'삼국유사'는 일연 스님이 고려 충렬왕 때인 1281년 편찬한 서적으로 한반도 고대 신화를 비롯해 역사, 종교, 생활, 문학 등 다양한 분야를 다룬 종합서다.



유류 유출 사고의 극복 과정을 담은 문서, 사진, 간행물 등으로, 관련 기록물이 약 22만2000건에 달한다.

조선 후기 여성들이 창작한 문학 작품을 한글로 적은 '내방가사'는 한글을 배우는 용도로 활용됐지만 18세기를 거쳐 19~20세기에는 여성 문학으로 자리 잡았다.

'태안 유류피해 극복 기록물'은 2007년 12월 충남 태안에서 발생한 대규모 유류 유출 사고의 극복 과정을 담은 문서, 사진, 간행물 등으로, 관련 기록물이 약 22만2000건에 달한다.

/연합뉴스

'대세 증명' 임영웅

올해의 아티스트·앨범상 등 멜론 'MMA 2022' 5관왕

가수 임영웅이 카카오펀터tainment 음원 플랫폼 멜론이 주최하는 'MMA 2022' (멜론뮤직어워드)에서 대상에 해당하는 '올해의 아티스트'를 포함해 5관왕에 등극했다.

27일 멜론에 따르면 임영웅은 전날 오후 서울 고척스카이돔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올해의 아티스트'·'올해의 앨범'·'톱 10'을 비롯해 '베스트 솔로 남자'·'네티즌 인기상'까지 품에 안았다.

그는 올해 5월 첫 정규음반 '아이 히어로' (IM HERO)를 발표해 음반과 음원 모두 차트 정상을 기록하며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

임영웅은 "이렇게 큰 상을 받을 날이 올 것이라고는 정말 꿈에도 상상 못했던 그 시절이 자주 생각이 난다"며 "그냥 앞으로 정말 더 열심히 해서 여러분께 더 멋진 음악, 좋은 음악을 들려드리도록 노력하는 그런 가수가 되도록 하겠다. 너무 감사하다"고 소감을 밝혔다.



임영웅

특히 올해 대형 신인 걸그룹이 잇따라 데뷔하면서 관심을 끌었던 신인상은 아이브 외에도 뉴진스가 공동으로 수상했다. 이 밖에 방탄소년단(BTS)은 '올해의 레코드'·'베스트 그룹 남자'·'톱 10' 등 3관왕을 차지했다.

지난해 12월 데뷔해 1년 만에 정상급 걸그룹으로도 약한아이브는 '올해의 신인'을 비롯해 '올해의 베스트 송'·'톱 10'·'베스트 그룹 여자'까지 4관왕에 올랐다.

/연합뉴스

'개념 가수' RM

국의 소재 문화재 보존·복원 공로 문화재청 감사패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리더 RM이 국의 소재 문화재 보존·복원에 기여한 공로로 문화재청으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25일 가요계에 따르면 RM은 지난 10월 31일자로 최우천 문화재청장 명의의 감사패를 받았다.

문화재청은 감사패를 통해 "우리나라 문화유산과 역사에 대한 지극한 관심과 애정으로 나라 밖 문화유산을 온전히 보존하고, 세계에 널리 알리는 데 크게 기여했다"고 고마움을 표했다.

RM은 지난해와 올해 '국의 소재 문화재 보존·복원에 써 달라'며 1억씩, 총 2억 원을 국외소재문화재재단에 기부했다.

그의 기부금은 조선 시대 활옷을 보존·복원하고



RM

한국 회화 작품을 알리는 도록을 제작하는 데 쓰였다. RM은 평소 미술에 관심이 많고 조예도 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다음 달 2일 발표하는 첫 솔로 음반 '인디고' (Indigo)에서도 고(故) 윤형근 화백의 작품과 협업했다.

그는 다음 달 2일 발표하는 첫 솔로 음반 '인디고' (Indigo)에서도 고(故) 윤형근 화백의 작품과 협업했다.

/연합뉴스

'듀엣 결성' 윤상

'캐스커' 이준오와 '노이스' 팀

가수 윤상이 캐스커의 이준오와 '노이스' (Nohys)라는 팀을 결성하고 26일 6년 만의 신곡을 발표한다고 소속사 오드아이엔씨가 25일 밝혔다.

노이스의 첫 싱글 '#3'에는 타이틀곡 '부서진'을 비롯해 '그린 플라워' (Green Flower)·'멜팅 포인트' (Melting Point) 세 곡이 수록됐다.

'부서진'은 윤상 고유의 감성을 오랜만에 만날 수 있는 로우 템포 마이너 장르의 곡이다. 써니힐 출신 김은영이 피쳐링으로 참여했다.

오드아이엔씨는 "노이스는 윤상과 이준오가 멜로디와 리듬뿐 아니라 소리에 공간감·질감·색깔·온도·정서까지 담겠다는 의지로 만든 팀"이라며 "국내 대중음악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실험적인 시도임에도 편안한 사운드로 트랙을 완성했다"고



가수 윤상(왼쪽), 캐스커 이준오

소개했다. 노이스는 내년 상반기 정규음반도 발표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한국토지부동산(주)

전원주택 신축

매매 9억5천만원



전라남도 담양군 수북면 청소년수련관입구

■ 대지 : 979㎡ (296.14평)

■ 건물 : 323.86㎡ (98평)

(지상2층, 지하주차장포함)

상담문의 010-3733-3933